

# 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## 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### Script

#### 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What should we do first?

- A. I can't finish this project.
- B. The first meeting was so great.
- C. How about starting from filing the documents?

월 먼저 해야 하죠?

- A. 전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어요.
- B. 첫 번째 미팅은 아주 대단했어요.
- C. 이 서류들을 철 하는 것로부터 시작해볼까요?

#### 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What should + 주어 + 동사 의 문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What should we do first?"

#### 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**Young:** What should we do first?

Young: 무얼 먼저 해야 하죠?

**Lisa:** How about starting from arranging the documents?

Lisa: 서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?

**Young:** Okay, where's my cabinet?

Young: 좋아요. 제 캐비닛은 어디 있죠?

**Lisa:** It's over there!

Lisa: 저기요!

#### 강의 보기 - Small Talk

☞ 아직은 서로가 낯설 수 밖에 없는 직장 초년생이지만 Young은 호칭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용기를 내어 가장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직장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넨다.

Dialogue - 1

**Young:** What should I call you?

(Young: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?)

**Lisa:** Just call me Lisa.

(Lisa: 그냥 리사 라고 불러주세요.)

☞ Young은 직장동료들이 오늘 오후 특별한 회의가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. 웬지 자기는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Young은 그 동안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……

Dialogue - 2

**Young:** What should I do in the meantime?

(Young: 그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?)

**Lisa:** I think you should join the meeting.

(Lisa:당신도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할걸요?)

☞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심한 농담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동료 가 Lisa 에게 사랑 고백하는 방법을 묻는다. Lisa의 대답은 그 동료가 장난이 너무 심했음을 드러내준다.

Dialogue - 3

**Young:** What should I tell her?

(Young: 내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요?)

**Lisa:** You can tell her you're serious this time.

(Lisa: 그녀에게 이번엔 장난이 아니라고 말해.)

## One more Tip!

### 공손한 제안

'Let's do this!' 식의 표현은 다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음.

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공손한 표현이 좋습니다.

How about~~, What about~~ 은 좀 더 공손한 제안

What about going to dinner?

What about having lunch?

How about having breakfast?